



여는 글

## \* 둥지를 떠난 여행 \*

박광옥

그래,  
살 냄새로 뒤덮은  
내 집이 있어 좋다

먼-길  
떠나던 때 설래 입  
얼굴엔 흥분의 즐거움 가득  
여행은 이름답지

한나절 빗줄기로 하늘이 알아있고  
갈 곳 없어  
축축한 길모퉁이 카페에 앉아  
흘러간 옛 팝송  
가슴 속 파고드는 커피향이 있어서 좋다

이들이 지난 후  
지쳐 가는 영혼은  
황량한 별판을 정복하며  
비린내 나는 대포항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

돌아오던 길  
구름지 넘어 내달리며 보이는 듯  
푹푹한 자연냄새  
그래,  
내 둥지가 보여



●●● 아름다운 봉사활동이 묻어나는 행복한 소식지

2005  
Autumn

Vol.24

# 손길나눔

- 2 여는 글
- 3 차례
- 4 센터로 가자
- 5 프로그램 돋보기
- 8 우리들의 봉사활동
- 11 I'M TEENAGER
- 12 동아리 탐방
- 15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시범학교 소식 목천중학교
- 16 봉사활동 체험수기
- 19 봉사활동 도우미



본소식지의 동아리탐방, 우리들의 봉사활동은 본센터소속의 기자들에 의해 작성된 원고입니다.  
기자로 활동하고 싶은 학생은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손길나눔은 충청남도의 도움으로 계간 발행됩니다.

센터 홈페이지(<http://www.bongsai.or.kr>)에서 「손길나눔」을 만나보세요.  
최근호는 물론 과월호까지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지·원고 보내실 곳 주소 320-802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19-1 공설운동장내  
「충청남도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전화\_041)736-9003~4 팩스\_041)733-1984

발행처\_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발행일\_2005. 9 비매품

편집·디자인\_신세계 커뮤니케이션즈 Tel.(042)636-8955

사진 : 자원봉사동아리 '누누미' (경양고등학교)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곳이 여기에 모였다.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는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연습하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삶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인 봉사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곳들이 여기에 모여있습니다. 저희센터 홈페이지(http://www.bongsai.or.kr)에 오면 다양한 봉사활동과 각 시설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본센터 홈페이지(www.bongsai.or.kr) 접속 하여 청소년 회원가입(회원)에 가입하여야만 활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로그인하여 봉사활동 하고 싶어요 클릭하여 활동명/기관명/지역명/교급명/지역별로 본인에 맞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찾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 1. 청소년 회원가입(www.bongsai.or.kr)



클릭

\*표시는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 2. 프로그램신청(봉사활동신청)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하여 『봉사활동 하고 싶어요』를 클릭한다.

활동명으로 찾기, 기관명으로 찾기, 지역별로 찾기, 교급별로 찾기, 찾기선택후

선택이 완료되면 가입선택후

클릭

활동대상자	활동연령	신청연령	남은연령	신청하기
고등학교 남자	5	0	5	신청
고등학교 여자	5	1	4	신청
대학생 남자	5	0	5	신청
대학생 여자	5	0	5	신청
총계	20	1	19	

# 프로그램 도보기

프로그램 돋보기는 센터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란입니다.

봉사활동 담당선생님 그리고 동아리지도교사 등 학생봉사활동에 관심을 갖으신 모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장애우와 함께하는 청소년봉사활동

###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이 함께하는 2005 통합캠프

#### “우리 두리 모두 같이”

- 일시 : 8월 5일 비장애청소년 사전교육  
8월 8일~10일 (2박3일)
- 장소 : 부여 삼정유스호스텔
- 주최 : 충청남도청소년지원봉사센터, 충청남도남부 장애인종합복지관
- 인원 : 장애청소년 39명, 비장애청소년 38명 지도자 13명
- 내용 : 8월 5일 -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체험  
8월 8일(월)~10일(수) 2박3일 - 물놀이, 단

스스포트츠 배우기, 백제토기만들기, 백제유적지 탐방, 레크리에이션 등

### 장애어린이체험활동 및 활동보조

- 일시 : 9월 24일
- 장소 : 아산시 도고면 세계 꽃 식물원
- 인원 : 장애어린이 30명, 체험활동 봉사자(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30명, 지도자 10명
- 내용 : 『세계꽃식물원』(세계꽃, 칸나, 연꽃 등)관람, 손수건 꽃염색하기, 화분үүл겨심기체험  
이외에 10월과 11월에는 정양원 가족들과의 가을 나들이와 12월에는 장애인을 위한 청소년문화공연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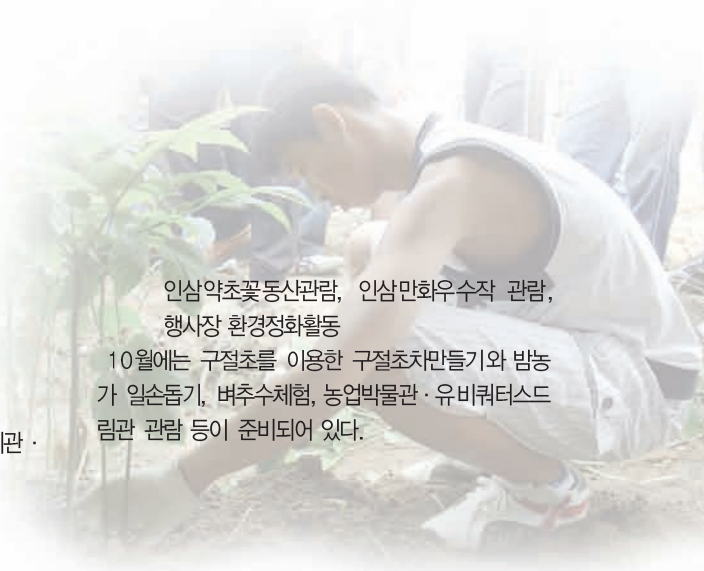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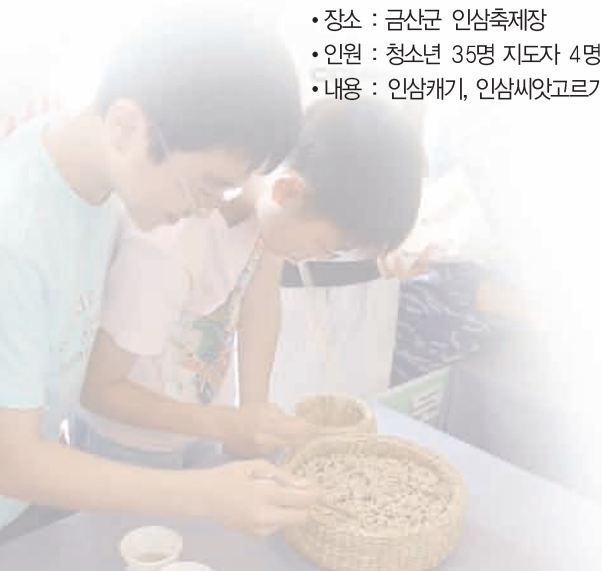
## 농어촌체험 봉사활동

### 인삼축제 체험활동 및 환경정화활동

- 일시 : 9월 3일 09:00~15:00
- 장소 : 금산군 인삼축제장
- 인원 : 청소년 35명 지도자 4명
- 내용 : 인삼캐기, 인삼쌔앗고르기, 인삼약초전시관

인삼약초꽃동산관람, 인삼만화우수작 관람, 행사장 환경정화활동

10월에는 구절초를 이용한 구절초차만들기와 밤농가 일손돕기, 벼추수체험, 농업박물관·유비쿼터스드림관 관람 등이 준비되어 있다.





## 청소년아르바이트 운영활성화

### 청소년아르바이트소양 교육 및 진로탐색검사

- 일시 : 7월 28일
- 장소 : 논산공업고등학교
- 인원 : 논산공업고등학생 140명
- 내용 : 올바른 소비문화와 건전한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의의, 연소자근로기준법 바로알기, 근로계약서 작성해보기, 아르바이트 실행의 문

### 제외 대처방법

9월과 10월중에는 금산의 추부중학교 등 8개 중·고등학교에서 570여명이 아르바이트 교육과 근로계약서작성 등 아르바이트 관련 교육과 홀랜드, Strong 진로탐색 검사 및 해석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봉사활동

### 「독거노인 반찬배달서비스」

- 일시 : 7월 6일
- 장소 : 장기중학교, 장기면 독거노인 가정
- 인원 : 청소년 140명, 지도자 10명
- 내용 : 가족과 함께 밑반찬 만들어 독거노인가정 전달하기

### 한가위 맞이 송편빚기

- 일시 : 9월10 ~16일 7회
- 장소 : 임천중, 연무초, 청양여중, 고향의 집, 논산애육원, 에덴보육원, 용화중
- 인원 : 청소년 300여명, 지도자 50명
- 내용 : 한가위 맞이 송편빚기 및 복지시설, 가림노인 병원 외 10곳, 연무읍 거주 독거노인 가정 전달하기

### 「독거노인 반찬배달서비스」

- 일시 : 10월 6일(목)
- 장소 : 장기면 내 독거노인 가정
- 인원 : 청소년 145명, 지도자 10명
- 내용 : 엄마와 함께 반찬만들기, 공주시 장기면 이은영 할머니의 10분에게 전달하기

##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봉사활동

###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봉사활동

- 일시 : 7월 26일
- 장소 : 청양군 정산면의 사랑의 집
- 인원 : 청양여자정보고등학생 42명, 지도자 5명
- 내용 : 목욕봉사, 삼계탕 끓여드리기, 머리염색하기, 풍선아트 및 청소

### 「어르신과 함께하는 가을나들이 및 노인의 날 축제도우미」

- 일시 : 10월 7일, 11일
- 장소 : 전라북도(부안) 이순신세트장, 대천해수욕장 (예정)
- 인원 : 공주지역 청소년과 흥성지역 청소년 80명, 어르신 80명, 지도자 10명
- 내용 : 어르신 나들이 보조 활동, 노인의 날

## 가족사랑 캠프

- 일시 : 9월24일 ~ 9월 25일(1박2일)
- 장소 : 상록리조트, 청남대
- 인원 : 한부모가정 38가족, 진행 10명

- 내용 : 한부모 초청 1박 2일 캠프, 레크리에이션, 명랑운동회, 가족영화관람, 청남대 관람 등

- 일시 : 7월 4일 ~ 7월8일
- 장소 : 본 센터, 논산~



동아리 혹은 학교의 봉사활동 내용과 사진을 보내주시면 게재하여 드립니다.

# “한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온양용화고 한마음봉사단”

## 독거노인 및 재가 어르신, 저 소득층 저학년을 찾아서

이윤정 기자

온양용화고등학교 한마음봉사단  
(단장 김세림)은

방학동안 온주사회복지관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였다. 우리 봉사단원들은 5조로 나뉘어 봉사할 날을 정하여 독거노인 및 재가 어르신, 저 소득층 저학년을 찾아가 봉사를 하였다. 각자 결연을 맺은 할머니를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어르신들의 주름진 얼굴을 잠시나마 퍼뜨리는 역할을 하였고, 그 외에도 청소 및 다과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다. 저 소

득층 저학년을 가르치는 봉사단 친구들은 동생 같은 아이들과 즐겁게 놀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봉사단원 친구들은 방학동안 에도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기쁜 마음에 봉사를 더 열심히 하며 뿌듯해 하였다. 방학동안 많은 친구들은 놀면서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 봉사단은 방학동안에도 봉사를 하면서 뜻 깊은 방학을 보냈다.

봉사에 대하여 좀 더 알게 되고 더욱 더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열심히 하는 한마음 봉사단이 되어야겠다.

## 굽은솔

### 공주정보고등학교

박다희 기자

학교주변을 돌아다니다 독거노인들이 사시는 곳의 벽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 굽은솔은 우리학교 주변인 금흥동 주변의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저분한 벽들을 깔끔하게 페인트칠을 해드리기로 했다.

9월3일 토요일, 학교수업을 마치고 학교 앞으로 페인트칠을 하기로 하고 갔다. 그곳은 사람들이 낙서도 많이 하고 불 필요한 포스터가 많이 붙여있어 지저분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우리들은 미술실에서 페인트와 붓 등을 가지고 벽을 칠하러 갔다.

먼저 바닥에 페인트가 튀지 않게 큰 자루 같은 걸 깔고 시작했다. 그리고 먼저 딱딱한 솔로 벽에 붙어 있는 껌, 포스터 등을 떼어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페인트칠을 시작했다. 붓으로 먼저 낙서가 된 곳을 칠하였다. 한번으로는 낙서가 지워지지 않아 여러번 칠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밀대로

페인트를 묻혀 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충 페인트를 칠하고 큰 밀대로 높은 곳을 이곳저곳 페인트칠을 하였다.

벽을 칠하고 있을 때 아주머니께서 나오셨는데 여기에 낙서가 많이 되어 있어서 기분이 안 좋다고 하셨다. 그래서 저희들이 깨끗이 해드리겠다고 하니 아주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셨다. 우리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라서 모자란 점들이 많이 있을텐데 기뻐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았다. 매번 이런 봉사활동 보다는 거의 일손돕기, 청소, 말벗 등을 해드렸는데 페인트 칠 봉사활동을 해보고 난 후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일손돕기등은 그때 우리들이 가면 그만이었지만 이 봉사활동은 오래 남고 서로 기분이 너무 좋았다. 아직 페인트칠 봉사활동이 초보단계지만 더 열심히 우리 금흥마을을 깨끗이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아직 계획중이지만, 다음에는 벽 말고 대문도 칠해드리는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 봉사동아리 『효 디딤돌』탐방

### 강지용 기자

목천중학교 봉사 동아리 효 디딤돌(지도교사 문영신, 회장 김이슬)은 2003학년도에 효 실천을 통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회원 15명 전원이 사랑을 나누는 적극적인 실천으로 2005학년도 제1회 나사렛 대학교 자원봉사 경진대회 중학생 단체부분 대상을 수상하였고, 제 8회 전국 청소년 충효실천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유이슬, 허유녕)을 수상하였으며, 제7회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였다.

효 디딤돌 회원들은 매주 신아원과 살롬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신아원에서는 원생들을 대상으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말벗하기, 학습 지도, 레크레이션, 특별활동, 시설내외 청소활동, 취사 및 식사 보조 활동, 영 유아 돌보기, 운동장 만드는 일 도와드리기, 고민 상담하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살롬의 집 봉사활동으로 3년째 몸이 불편한 할머니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리기, 기저귀 갈아드리기, 위문공연 해드리기, 안마해드리기. 텃밭의 거름주기, 풀 뽑기, 돌 골라내기, 말뚝무 해드리기, 청소하기 등을 통해 나눔과 행복을 배우고 있다.

효 디딤돌 회원인 전자홍 (2학년)은 평소에 이런 활동 덕분에 개인봉사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며 뿌듯해 하였다. 다른 효 디딤돌 회원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효 디딤돌 회장 김이슬 학생(3학년)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강 : 자원봉사대회에 참가하여 각종 봉사상을 휩쓸고 있는데 상을 탈 때마다 기분이 어떠하였습니까?

김 : 상을 받을 때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합니다. 회원들 모두 열싸안고 뛰었습니다. 저희 회원들은 조금씩 힘을 모아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하시지 못하는 일들을 도와드린 것뿐인데 이렇게 큰 상들을 탈 줄 몰랐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도 더 열심히 봉사하라고 주는 상으로 생각하

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 회원들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을 합쳐 땀 흘린 우리 효 디딤돌 회원들과 지도해주신 문영신 선생님 과 정별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강 : 이번 여름방학동안에도 매주 금요일 마다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와 가장 좋았던 때가 있다면 어느 때이었습니까?

김 : 올 여름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는데요. 몸이 약하신 어르신 분들을 위해 뜨거운 물로 목욕시켜 드릴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더운 열기와 흐르는 땀을 어찌하지 못하고 옷을 적셨지만 이열치열이라 생각하고 회원모두 기분 좋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을 때는 음... 가장 좋다가보다는 활동이 끝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시원한 물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때가 항상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하고 나서의 시원한 물 한잔이란 정말 꿀맛이었습니니다.

강 :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렇다면 봉사활동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김 : 하하. 그냥 흔한 얘기 같지만 정말로 봉사활동이란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식상한가요? 하하하.

강 : 마지막으로 자신이 속해있는 동아리 효 디딤돌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해준다면?

김 : 동아리 효 디딤돌은요 목천중학교 여러 동아리중 하나지만 모두들 즐겁고 자발적이며 사랑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부서이구요. 자신의 실력을 키워가는 부서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을 키워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효 디딤돌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강 : 입시 준비에 바쁜 시간 중 인터뷰에 응해주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전국 자원봉사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름다운 조리나눔터

## 담당자(강경심선생님) 인터뷰



노진웅 기자

〈진웅〉 안녕하세요? 선생님!

매일 만나는 선생님을 취재하려니 조금 쑥스럽기도 해요.

이번 소식지에서는 동아리에 속한 인물들을 취재하기로 해서 동아리 임원들에게 의견 조사를 해보았더니 만장일치

로 선생님이 가장 좋겠다고 해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많이 바쁘셔도 조금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가워요^^ 선생님이 인터뷰도 다 받고 출세했네. 성의껏 대답해줄테니 궁금한 건 모두 물어봐요.

〈진웅〉 선생님! 저희 동아리명이 '아름다운 조리나눔터' 인데 이렇게 정하신 이유라도 있나요?

〈선생님〉 응! 그렇게 정한 것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요리를, 아름답게 나누어 주자' 라는 목적으로 지어본거야.

〈진웅〉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전 동아리에 가입해 활동을 하면서도 동아리 이름의 뜻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동아리 운영을 계획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선생님〉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조리과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운영을 하게 되었고, 이왕 지도교사가 된 이상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진웅〉 동아리 담당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은 없으세요?

〈선생님〉 왜 없었겠어. 새벽같이 학교에 와서 음식 판매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고 또 많은 친구들이 와서 맛있게 먹어주면 피로가 싹 사라지곤 했었어. 너희도 마찬가지로 꺼라고 생각해.

〈진웅〉 가장 보람이 있으셨던 적은 언제셨어요?

〈선생님〉 공주에 있는 명주요양원에 갔을 때 비가 억수로 많이 쏟아졌는데에도 동아리 임원들이 진심을 다해 장애우를 돌보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많이 흐트했었어. 그리고 우리 학교 풍물패가 혼신을 다해 장애우들을 위해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오길 잘했구나하고 생각했었어. 또 자랑스러웠고.

〈진웅〉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없으세요?

〈선생님〉 우리가 여태껏 해오던 것처럼 무의탁 노인분들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여건이 되면 또 다른 기관의 어려운 이웃들 돌보아야겠지. 그리고 그분들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음식 판매도 계속할 계획이야. 잘 부탁해. 우리 열심히 해보자.

연말에는 인근에 있는 양로원을 찾아가서 맛있는 떡국을 끓여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불편한 곳 보살펴드리고 오면 어떨까 생각중이야.

〈진웅〉 좋은 생각 같아요. 저희들도 그런 일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함께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동아리 활동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장시간 질문에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 진웅아.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무의탁 노인 식사 대접을 위한 협의회가 있으니까 이만 마쳐야겠다. 그럼 조금 있다 보자.

# Blue Ocean 블루오션

‘블루 오션(Blue Ocean)’은 알려져 있지 않은 시장, 즉 현재 존재하지 않아서 경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모든 산업을 말한다. ‘블루오션’에서 지장 수요는 경쟁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 의해서 얻어진다. 이곳에는 높은 수익과 빠른 성장을 가능케하는 엄청난 기회가 존재한다.

나만의 재능이나 특기를 계발시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먼저하는 것이다. 이색직업의 세계, 그곳이 바로 직업의 블루오션이다.

단순한 꽃집이나 꽃배달이 아니라 플로리스트, 요리사가 아닌 푸드스타일리스트, 때밀이가 아닌 목욕관리사..., 개중에는 스킨스쿠버 다이버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잠수기능사처럼 취미를 특화한 것도 있다.

그러나 ‘블루오션’이라고 해서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단지 먼저 시작했다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편안하고 등 따스한 것만 찾는 세상 안 보이는 자기만의 세계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눈을 돌리면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미지의 세계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 **파티쉐** : 파티쉐(Pâtissier)는 프랑스어로 “제과제빵 기술자”를 뜻하는 말로서 밀가루를 주체로 만든 과자류, 케이크, 쿠키 등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감한 미각,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능력, 손재주가 필요하며 예술적인 감각이 있다면 더욱 먹음직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주요활동 - 식당(레스토랑)에 취업할 수도 있고, 개인 창업 등

■ **카지노딜러** : 카지노 딜러란 카지노에서 각종 게임을 리드하며 고객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신체조건으로는 남자 170cm 여자 160cm이상의 시력 또한 색맹이 아닌 자로 0.1 이상(교정시력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 주요활동 - 카지노 딜러는 테이블 게임(바카라, 룰렛, 블랙잭, 등)을 이용하는 손님 대상을 주로 게임진행

■ **바텐더** : 술을 만든다고 해서 조주사(造酒士)라고도 하는 바텐더(Bartender)는 고객의 취향에 맞는 칵테일을 만드는 사람이다.

• 준비과정 - 사설 칵테일 학원에서 교육을 받거나 강좌를 수강한 후 조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 또는 바텐더 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도 있다.

• 주요활동 -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이나 파티전문회사, 칵테일 점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푸드스타일리스트** : 하나의 요리를 통해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꾸미는 사람이 푸드스타일리스트입니다. 푸드스타일리스트는 요리의 특성을 잘 살리고, 요리에 어울리는 그릇을 고르거나 음식을 담는 방법을 연구하며, 주변에 놓일 소품을 준비해서 요리를 돋보이게 하고 최대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잡지·CF·TV 촬영과 파티 전문 푸드 스타일링 등 푸드스타일리스트가 활동을 합니다. 또한, 자신만의 푸드스타일 감각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 **플로리스트** : 플로리스트(florist)는 플라워(flower)와 아티스트(artist)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 준비과정 -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관련학과, 사설학원이나 평생교육원, 사회복지관, 문화센터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파티플래너, 푸드스타일리스트와 함께 대형이벤트 등의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 **특수분장사** : 대학의 코디네이션, 메이크업, 패션예술 등의 관련 학과에서 배울 수 있으며, 전문 사설학원도 많이 개설되어 배우의 길이 넓고 특수분장에 대해 의뢰를 받으면,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배우의 극중 성격을 파악하고 디자인하는 것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 주요활동 - 최근 국내 영화와 방송, 광고에서 특수효과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며, 소극장 문화가 활발해지면서 특수분장사들의 활동도 활발해졌습니다.



# 마지막까지 베푸는 ‘그루터기’



작은 학교, 해미중학교의 봉사단 ‘그루터기’는 올해 김선중 선생님과 이광상 선생님의 도움으로 태어났다. 우리의 활동은 주로 서산시 고북면에 있는 ‘샤론의 집’이라는 노인요양원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잔디 옮겨심기와 꽃 옮겨심기, 감자 캐기와 잡초뽑기 등 바깥일과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로해 드리는 일을 하였다. 처음에는 어설프고 많이 서툴렀지만 차츰 일이 손에 익었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결연을 맺고 대화와 안마 등을 해 드리며 정이 들어갔다.

특히 5월 8일 어버이날 아침, 우리는 ‘샤론의 집’을 방문하여 할머니, 할아버지께 우리가 직접 만든 꽃을 가슴에 달아 드리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 ‘어머님 은혜와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노래를 깜짝 선물로 드렸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도 따라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결연을 맺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양말과 과일을 드리며 오뎀한 때를 보냈다. 가슴 뿌듯한 하루였다. 그 후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가 가면 반갑게 맞아주시곤 한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봉사활동은 우리들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길러 주었고 요양원에 의지해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우리가 드릴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기쁜 체험이었다.

아직 햇병아리 봉사단인 우리학교 ‘그루터기’는 재미있는 선생님들과 재치있는 단원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어, 힘이 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루터기 파이팅!!!

# ‘사랑누리’ 충남인터넷고등학교

최윤정 기자

우리학교에는 「사랑누리」라는 봉사활동 동아리가 있다.

우리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인 토요일에 사회봉사법인인 계룡학사에 거주하는 초

등학교 학생들과 행복나누기 실현을 위한 컴퓨터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가 가르치기로 한 과목은 워드프로세서, 포토샵, 엑셀, 미니홈피 관리이다. 1학기동안은 2,3학년 선배들이 수업을 하기로 하고, 1학년들은 보조를 맡았다.

우리는 5월에 각자 수업할 내용을 준비를 하였으며, 1학년들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선배들이 준비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6월 마지막 주 토요일 떨어는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수업은 하루 4시간(40분 수업), 과목별 1시간씩 수업을 배정하고, 3학년 선배들이 중심이 되어 사진 촬영 및 포토샵을 활용한 사진 편집에 대해 수업을 시작하였다.

떨리고 긴장한 상태에서 1교시는 시작되었고, 1교시는 서로 친해지기 위해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먼저 선생님께서 우리를 소개해 주셨고, 다음에는 초등학교생들이 각자 소개를 하기로 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시자, 선배들은 긴장한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자기소개 잘 했다. 긴장한 건 1학년들... 1학년들은 긴장한 상태에서 소개를 해서 뭐라고 했는지도 잘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의 소개가 끝나고 초등학교생들의 소개 시간! 우리는 뒤에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 중엔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도 있었고, 개구쟁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아이도 있었다. 그렇게 자기소개가 끝나고, 우리는 사진촬영 준비를 했다.

3교시부터 시작될 포토샵 수업을 위해 야외에 나가 아이들 사진을 찍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진을 찍는 일은 2

학년 선배와 소정이, 우리는 교실에서 촬영 준비를 마치고, 학교 교정으로 나갔다. 아이들은 단체사진을 찍고 각자 찍고 싶은 친구와 사진을 찍었다. 그 중 개구쟁이 녀석들이 있어서 조금 곤욕을 치루긴 했지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렇게 2교시를 보내고 다시 실습실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포토샵 수업이 시작되었다. 3학년 선배가 수업을 하고 2학년 선배와 1학년은 뒤에서 보조를 맡았다.

포토샵 수업은 2교시에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수업 내용이 조금은 어려운지 못 따라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우리 1학년들도 조금은 어려워서 가끔씩 틀리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즐거운 수업이었다.

초등학교생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면서도 잘 따라서 해주었다. 이 날은 수업이 늦게 시작 되어 수업은 3시간 밖에 하지 못했지만, 보람찬 하루였다. 우리는 초등학교생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뒤, 청소와 뒷정리를 마치고, 다음 수업내용을 선생님과의 상의를 했다.

9월까지 3학년 선배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우리 후배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것저것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9월부터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어렵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지루해하기만 할 것 같았다. 그리고 미니홈피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하는 부분인데 뭘 더 이상 가르쳐야 할지도 막막하기만 했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 수업을 생각해 보았다. 첫 수업이어서 그런지 모든 것이 어색하기만 했던 것 같고 긴장도 많이해서 보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같아서 조금 아쉬웠다.

앞으로 4개월 동안 4번 수업을 할텐데,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오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였다.



# ‘나누미’ 청양정보고등학교

유정연 기자

작지만 사랑이 넘치는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는 가슴과 마음이 따뜻하고 항상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이해심 가득한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함께 있고 마주보지만 해도 웃음이 터져 나오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다. 그 중에서도 내가 몸담고 있는 봉사동아리 “나누미”는 우리 주변의 불우이웃을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나누는 착한 천사들이 모인 동아리이다

학기초에는 동아리 모집 포스터를 보고 너무 많은 친구들이 지원하여 선발을 할 정도로 인기가 많으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효실천봉사단과 방과후 특별교육과정인 제과제빵반이 하나로 뭉쳐 실무기능을 익혀 자기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이를 이웃사랑에 활용하여 작지만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첫번째 활동인 우리지역에 홀로 사시는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이다. 청양군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4분의 독거노인들을 매월 1회 방문하여 염색 해드리기, 빨래 해드리기 건강이 좋지 않은 할머니들의 팔다리 안마 해드리기, 말벗 해드리기 등의 자그만 활동이지만 너무나 재미있어 하시고 어린이가 같이 우리를 반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주 찾아 봐야 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두번째 봉사활동은 제과제빵을 통한 봉사활동이다. 매주 토요일 다함께 모여 제과제빵 기술을 익히며 어린이날, 어버이날,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에는 우리가 만든 제과제빵을 전달하기도 하며, 매월 1회 제과제빵을 만들어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을 찾아 뵙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세번째 활동은 매월 1회 방문하는 장애인복지단체 봉사활동이다. 자매단체인 “사랑의 집”은 이제 우리가 식

구가 된 듯한 분위기이다. 장애를 가지신 어른들의 목욕도 시켜드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염색도 해드리며, 굶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 원장님으로부터 칭찬도 자주 듣는다.

네 번째 활동은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봉사활동이다. 부여 “삼신보육원”에서의 방학숙제 도와주기 및 짜장면 같이 먹기, “사랑의 집” 식구들을 위한 여름철 삼계탕 끓여드리기, 추석맞이 송편 같이 만들기, 어린 장애아들을 위한 풍선아트 같이 만들기 같은 이벤트를 준비하여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사랑을 펼치고 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 이외에도 우리 나누미에서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열리는 축제에는 알뜰 바자회를 열어 의류 및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복지단체에 기부하고 수익금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 하며, 졸업생 언니들의 교복물려주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나누미”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우리들은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우리들 자신의 행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그동안 많은 행복을 누리면서도 불행하게 생각했던 일, 또 너무나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으며 행동했던 일도 많이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봉사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봉사활동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된다.

우리 주위에는 크든 작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있으며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그 누군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우리 “나누미” 친구들과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나 자신보다는 이웃을 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나누미” 동아리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한다.

# 목천중학교

## 1. 음식나누기 행사(6월 18일)



〈화채 만들기〉

〈잡채만들기〉

〈파전만들기(재료준비)〉

〈파전만들기〉

가사실은 온통 맛있는 냄새와 음식을 만들며 즐거운 웃음소리로 가득하였다. 유연옥 선생님과 조재도 선생님은 잡채를 만들 당면을 적당히 삶고 김정임 선생님과 학생들은 돼지고기, 느타리버섯, 시금치, 당근을 열심히 볶아 참기름, 간장, 양파, 깨소금을 넣어 맛있게 잡채를 만드셨다. 정유경 선생님, 박경희 선생님, 박영희 선생님께서도 해물파전을 만들기 위해 오징어, 조갯살, 굴, 고추, 당근, 파, 부추, 호박을 다듬어 부침재료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은 열심히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파전을 만들었다. 오수창 선생님과 김정자 선생님은 3반 학생들과 함께 수박, 후르츠 칵테일, 바나나, 쥬스를 이용하여 화채를 만들었다.

두 시간 동안 부지런히 정성껏 만든 음식은 사랑의 집, 사랑과 평화의 집, 살롬의 집으로 음식이 식기전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방문하여 위문활동을 마쳤다.

## 2. 봉사활동 문예대회(6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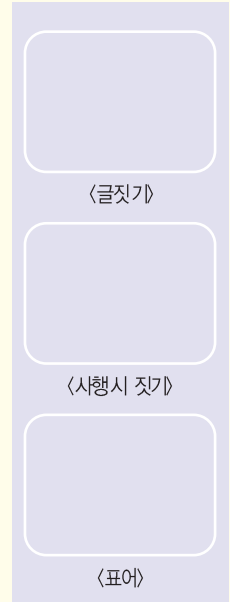
봉사활동 문예대회는 봉사활동 마인드를 확산하고 타인의 봉사활동 내용을 알게 되며, 교육적인 보상을 효과와 더불어 봉사활동의 실천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글짓기, 사행시 짓기, 표어, 포스터그리기 4개 부문에서 목천중학교 전체학생이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글짓기 부문에서 반혜준은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하고 서로 나누며 느낄 수 있는 진실한 봉사활동에 대한 시를, 박수인은 사랑의 집에서 장애우들과 함께 하며 느꼈던 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이희선은 지금까지 내신 성적을 위한 시간 때우기식의 봉사활동

동에서 한 학기 동안 직접 체험하면서 느낀 다시 생각하는 봉사활동으로, 사행시 부문에서 최은지는 봉사활동이라는 시제로 “봉사하는 당신의 모습이 사랑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사랑 당신의 사랑을 우리 동무들에게 조금만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사랑을 하면 행복해 집니다”, 박소라는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힘들지만 활짝 웃으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동요를 부르며 즐거워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합시다.” 표어부문에서 김민주는 “봉사활동은 마음의 행복 작은 노력들이 보람과 사랑을” 서선경은 “사랑의 징검다리 마음의 여울돌” 포스터 부문에서는 김진희가 영예의 금상을 차지하였다. 이번 봉사활동 문예대회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2시간 동안 진지하게 진행되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3. 일손 돕기활동(7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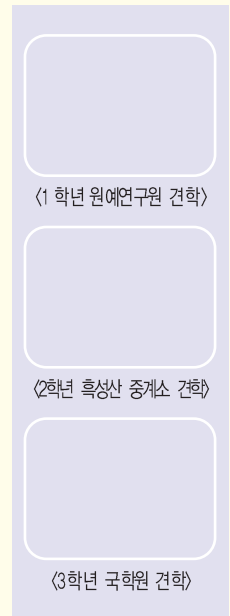
1학년은 원예연구원을 방문하여 작물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예연구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잡초 제거 등의 일손 돕기 활동을 하였으며, 2학년은 목천중학교와 독립기념관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흑성산을 등산하며 환경보호활동과 흑성산 중계소 시설을 견학하는 활동을 하였다. 3학년은 천안교육청의 차량을 지원 받아 국학원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진취적이고 훌륭한 역사를 경험하는 행사를 가졌다.



〈글짓기〉

〈사행시 짓기〉

〈표어〉



〈1학년 원예연구원 견학〉

〈2학년 흑성산 중계소 견학〉

〈3학년 국학원 견학〉

## 2005 청소년 금강생태체험을 마치며...

논산고등학교 2

이종민

여기 “금강생태체험”에 와서 많은 것을 느꼈다.

하나는 금강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 수가 있어서 좋았다.

금강의 근원지 “뜰봉샘”도 알았고, 전북에서 시작해서 충남에서 끝난다는 것도 알았다. 무척 더운 날씨에 고생은 했지만 인문계학교 학생인 나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수질등급을 측정하는 “부영양화 검사”는 무척 재미있었다. 금강하구둑에서 옷을 버리면서까지 물을 떠 주신 3, 4조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고등학교때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가 있는 캠프를 지원해 주신 청소년자원봉사센터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두 번째는 우리조에 대해 인상이 깊었다.

중학생, 고등학생, 지도자선생님이 합친 우리 최강 4조.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모두들 수고 많이 했다. 단합심 하나는 끝내줬다.

셋째는 정말 넓은 범위의 아이들을 보았다.

1년후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는 나에게 정말 특별한 아이들을 보아서 좋았다.

마지막으로 물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가 있어서 좋았다.

401km의 길이인 금강이 1등급에서 바로 5등급이 되다니... 그만큼 환경의 소중함과 물고기들을 배울 수가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참보람된 경험이었다.

다음기회가 온다면 지도자로서 또 오고싶다.

## 2005 청소년여름문화학교 소감문

논산여자고등학교 2

신란

처음 선생님께서 ‘청소년 여름문화학교’에 참가할 것이냐고 물어 보셨을 때, 5000원의 작은 돈으로 2박3일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당장 가겠다고 말씀드렸다.

사정 때문에 조금 늦게 참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어색함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선생님이나 주변 아이들이 잘 대해줘서 금새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처음에는 전통놀이체험을 하는데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것들이라 어색하긴 했지만 놀이를 하면서 전통놀이를 인터넷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들이나 현대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체험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골든벨도 나름대로 재미있고 유익하였다.

다음날 ‘봉사’라는 주제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선생님께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봉사의 개념과 앞으로 봉사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문화유적들을 걸어다니며 볼 때는 너무 더워서 힘들었지만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 세계에 많이 알려졌으면 하였다. 그밖에 부채 만들기, 어울림 한마당도 참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 베트남에서의 9박 10일을 보내고...

여름이 막 시작된 어느 날, '대한민국-베트남 청소년 국제교류 및 문화 공연' 자원봉사에 신청을 했다. 단 몇 분 만에 갑작스럽게 정한 것이고 생각도 못했던 터라 나에게 좋

은 기회가 되어줄 수 있을는지 많은 걱정을 했다. 나만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방학의 계획을 한 순간에 결정해버린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그러나 여행을 다녀온 지금, 베트남에서의 9박 10일이 내게 주어질 수 있음에 행복하다.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과 우물 안 개구리였던 나의 시야를 넓혀준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곳에 대한 나의 느낌을 적어보고자 한다.

설레고 두려운 마음을 한 가득 싣고, 졸린 눈을 비벼 집을 떠난 때는 새벽 2시였다. 우리 집 보령에서 논산으로, 다시 인천 공항으로 향했다. 복잡한 입국 수속을 마쳐 벌써 지친 몸을 쉬려니 4시간 30분의 비행기 탑승 시간이 너무 짧았다. 베트남 공항에 도착해서 마음만큼이나 무거운 짐을 들고 나가니 습한 기운이 온 몸을 휘감았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도 근처에 있는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더위와 습기를 한 번에 느낄 수 있기에 충분했다. 그 때가 바로 우리와는 다른 공산정권의 베트남의 땅을 밟은 순간이었다. 자원봉사의 목적을 가진 여행이기에 일거리가 많은 사골, 룡안성의 숙소로 곧장 향했다. 3시간 넘게 숙소로 향하는 동안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베트남의 길거리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숙소에 도착해 30분정도 베트남 청소년들과의 만남을 가졌으나 부족한 영어 실력에 몇 마디 나눌 수가 없었다. 첫날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피곤함, 설렘과 함께 내일 펼쳐질 일을 기대하며 잠을 청했다.

룡안성의 역사에 대한 박물관과 전통 마을을 다녀온 이틀 날을 지내니 베트남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남은 날들 동안 알게 될 베트남에 대한 수많은 것들에 벌써부터 마음이 들떴다. 저녁 만찬 때에는 각자 장기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의 문화 공연에 이어 생전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이 쏟아져 나왔다. 더위 때문에 향신료를 많이 넣어 먹는다는 베트남 요리를 직접 먹어보니, 비행기로 고작 몇 시간 타고 온 이곳과 우리나라의 식생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고 너무 놀랐다. 끝없이 챙겨주

샌블어자고등학교 2

노다래

시는 베트남 사회주의 청년단체분들께는 죄송스럽지만 한 가지도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로마에 왔으면 로마 법을 따라야하지만 음식만큼은 베트남법

을 따를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대신 친절한 베트남인들의 관심과 배려로 든든했다. 말은 완전히 통하지 않았지만 미소만으로 마음은 통할 수 있었다. 좋은 저녁이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은 육체적 노동이 많이 요구된 날이었다. 도로정비라 해서 단단한 진흙을 발로 밟으며 반듯하게 만들어야했고, 흙을 포대에 담아 차에 집어넣는 일이 시작이었다. 내 나이 또래 여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연령층이 많은 일을 하고 있었다. 힘들긴 했지만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너무 편하게 산 것은 아닌지 부끄러웠다.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도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고 조금의 잡초 뽑기도 귀찮아한 너무 편한 삶을 살아온 나와, 아직도 학교에 가기위해 불편하고 먼 길을 걸어가야만 하고 일손 돕기에 남은 하루를 보내는 베트남 학생들을 비교해보니 내가 너무 창피할 따름이다. 그러면서도 온갖 불평은 있는 대로 한 나였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몇 시간 일하지도 않았는데 지쳐버린 우리들을 위해 감사하단 박수를 쳐주는 순박한 베트남인들의 웃음 속에서 힘듦은 깨끗이 잊을 수 있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니 뭔가 반고만 온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한 가득이었다. 다음 날은 더 열심히 한다는 굳은 다짐을 해서 찾아간 곳은 집을 짓는다는 곳이었다. 어느 불쌍한 할머니를 위해 짓는다는데, 모 두들 발 벗고 나선 모습이 보기 좋았다. 집을 짓는다는 게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기에 우리에게 그리 힘든 일을 시키지 않아 자그마한 돌을 몇 번 나르는 게 전부였다. 자식도 없고 혼자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할머니의 불편한 잠자리가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해외에 어렵게 사는 곳에 도움을 주러 가면 동네 아이들이 20명도 넘게 모여 구경하는 - 텔레비전에서나 보았던 모습을 실제로 보았다. 맨발 벗은 아이들이 내내 우리들을 신기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는데 그 수가 족히 유치원을 차려도 될 정도였다. 사진도 찍고 함께 놀아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어린 아이가 자신보다 더 어린 동생을 안고 와 돌봐주는 모습이



며 맨발 벗은 아이들이 어깨동무 하고 다니며 즐겁게 노는 모습 모두가 아름다웠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계속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했다. 그새 정이 들었는지 다시 오라는 아이들 말에 눈물이 나려고 했다.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며 숙소로 돌아왔다. 세상엔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 그것을 모르고 지낸 내가 한심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나여서 부모님께 감사했다. 많은 것을 얻은 하루였다.

우리는 초등학교에 직접 가서 풍선도 만들어주고 한국에서 시간 선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마구 달려드는 아이들에 정신이 없었지만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나도 덩달아 기뻐했다. 날씨가 더워 땀이 나고 아이들이 너무 많아 빨리하려고 입으로 풍선을 불다보니 힘도 들었지만, 며칠 동안 너무 얻은 게 많은 베트남에서 나도 뭔가 하고 싶어 더욱 열심히 했는지도 모른다. 보람 있었다.

이제야 친해진 룡안성 호텔 사람들과 익숙해진 음식들에 마냥 기쁘기만 했는데 어느새 6일이 흐르고 룡안성을 떠날 날이 오게 되었다. 그다지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뜻 깊은 시간을 보낸 이 곳, 룡안성에서 자원 봉사가 잊히지 않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믿는다. 베트남의 시골인 룡안성에서 베트남의 현재 생활을 알 수 있었다면 호치민에선 유명한 관광지로 가 역사적인 현장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호치민에서의 우리의 처음 관광지는 호치민 박물관이었다. 난 호치민이 사람 이름인지도 몰랐다. 호치민은 베트남에서는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진다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곳에 왔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내가 여행하는 곳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오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베트남에 대해서 알아온 것이 많았더라면 얻는 것이 배가 되었을 것이고 조심해야할 것도 알았을 텐데 말이다. 호치민은 이 나라의 국민을 지도하는 데 힘썼고 지도자로서 겸손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어 생활한 호치민이 너무 존경스러웠다. 이제야 베트남 모든 자폐에 그의 사진이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에게 너무 사치스러운 호치민 호텔에서 모든 피곤을 다 풀어 버리고 다음 날 간 곳은 전쟁 박물관과 구찌 터널이었다. 베트남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우리 둘째 외삼촌이 이 전쟁에 참여하셨으므로 나에게 베트남 여행은 더 뜻 깊었는데, 여행을 통해 그 전쟁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다.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저항 없이 죽어가기만 했던 수많은 베트남인의 사진을 보고 있자니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가 힘들었다. 또 고엽제의 피해로 몇 대에 걸

쳐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야하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에 매우 슬펐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직접적으로 느낀 세계 평가가 꼭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시는 잔혹한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구찌터널은 미국 군인들을 피해 베트남 주민들이 땅 속에 만든 터널인데, 회의장과 식당에서부터 화장실까지 없는 것이 없었다. 베트남 사람들의 치밀한 굴이 흡사 개미굴과 같았다. 없는 게 없고 혹 침입하면 나갈 수 있게 강과도 연결해놨다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제일 존경스러운 것은 그 더운 땅 속에서 10년 동안이나 살았다는 것이다. 구찌 터널을 만든 대단함 뿐만 아니라 살아야만 한다는 그들의 정신력은 어디에 견줄 수가 없었다. 난 단 5분도 그 굴 속에 있기 힘들었는데 말이다. 전쟁의 잔혹함과 비참함을 알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 역사에 대한 소개를 받을 때마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비록 우리나라는 아직 통일을 하진 못했지만 베트남도 월남과 월북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다른 나라의 침입 받은 것도 같아서인지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이 베트남이 나에게 참으로 친근감 있게 느껴졌다.

이 자원봉사를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자원 봉사라 하면 내가 주는 게 더 많아야 하는데 어쩌면 난 더 많은 것을 얻어왔는지 모르겠다. 함께 간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 내내 고생해주신 그곳의 사회주의 청년단체 분들에게도, 항상 예쁘게 웃는 베트남인들에게도 받기만 했다. 처음 만난 친구들, 동생들과도 9박 10일 동안 지내면서 많이 친해졌는데, 가장 높은 학년으로서 내가 더 희생하지 못하고 욕심만 낸 것은 아닌지 후회스럽다. 같이 간 친구, 동생들에게 받은 것이 많다. 이번 여행은 나를 더 사람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데 보탬이 되었다. 협동심도 배우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더 감사하게 여길 수 있었다. 후회는 없다. 단지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해외로 나와서야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직도 원시적인 화장실을 쓰면서, 자급자족하며 사는 사람들의 소박한 삶에 비하면 나는 정말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내 마음 속에 조그맣게 키우던 꿈, 기아에 허덕이고 가진 것이 없어 삶의 어려움이 가득한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꿈을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여행은 참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말, 거짓이 아니다. 베트남에서의 내 첫 해외여행은 내 마음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이다.



# 우수봉사자 및 우수활동터전 시상 공고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신청하고 활동한 봉사자 및 우수협력터전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시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 목 적

- 청소년봉사활동을 인터넷에서 예약하고 활동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함
- 우수 활동자에 대한 포상
- 오프라인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터전을 본센터와 연계하여 온라인을 통한 봉사활동을 신청하고 활동하도록 한다
- 청소년봉사활동 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하며 청소년 봉사자와 활동터전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

## »» 시 기

2005년 8월~지속

## »» 대 상

1. 월간 최다시간 봉사자
2. 월간 최다활동 봉사자
3. 월간 우수협력터전 최다활동인원수
4. 월간 우수협력터전 최다활동(모집)회수

## »» 선정기준

구 분	대 상	선 정 기 준	등 점 자 처 리
월간 최다시간 봉사자	청소년/ 지도자	- 월간 10시간 이상 봉사자 - 최다활동에 선정되지는 제외 - 해당분기내 선정자 제외	1) 봉사회수 순 2) 생년월일(나이)이 어린 봉사자 3) 회원가입 순
월간 최다활동 봉사자	청소년/ 지도자	- 월간 2회이상 봉사자 - 최다시간 봉사자에선정되지는 제외 - 해당분기내 선정자 제외	1) 봉사시간 순 2) 생년월일(나이)이 어린 봉사자 3) 회원가입 순
월간 우수협력터전 최다활동인원수	봉사담당자	- 월간 20명 이상 활동 터전 - 최다활동회수 선정터전 제외 - 해당분기내 선정 포상터전 제외	1) 모집회수 순 2) 기관회원가입 순
월간 우수협력터전 최다활동(모집)회수	봉사담당자	- 월간 2회 이상 봉사자활동 터전 - 최다활동인원수 선정터전 제외 - 터전에서 직접올린 활동만 해당 - 해당분기내 선정 포상터전 제외	1) 활동인원수 순 2) 기관회원가입 순

## »» 선정인원 및 포상

구 분	인 원	포 상 내 역
월간 최다시간 봉사자	청소년 2명	-표창 및 1만원 상당의 상품권부상
	지도자 1명	-대학생일 경우 : 표창 및 1만원 상당의 상품권부상 -일반 및 교사일 경우 :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월간 최다활동 봉사자	청소년 2명	-표창 및 1만원 상당의 상품권부상
	지도자 1명	-대학생일 경우 : 표창 및 1만원 상당의 상품권부상 -일반 및 교사일 경우 :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월간 우수협력터전 최다활동인원수	봉사담당자 1명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월간 우수협력터전 최다활동(모집)회수	봉사담당자 1명	-5만원 상당의 상품권

## »» 기 타

- 선정결과 발표는 익월 5일 입니다.
- 수상자는 상품권 수령후 수령확인증을 본센터에 송부해야만 한다.
- 연말 청소년자원봉사 박람회시 봉사자 및 터전에 대하여 연간실적우수자(터전 및 담당자포함)에 시상합니다.

# 2005

## 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

■ 대 상 : 충청남도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 공모부문

#### 실천부문

- 개인 봉사활동 - 실천사례(소정양식), 관련자료
- 동아리 봉사활동 - 실천사례(소정양식), 관련자료
- ※양식은 홈페이지([www.bongsai.or.kr](http://www.bongsai.or.kr))에서 다운받으세요.

#### 문예부문

- 체험수기 - 분량: A4 용지 4~5매 내외(내용 12포인트, 줄간격 160)
- 만화·컴퓨터그래픽 - 작품소개서, 만화 10컷 내외 8절 크기, 컴퓨터그래픽 8절 크기

### ■ 접수

- 마감 : 2005년 10월 15일(토) 접수분에 한함
-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19-1 공설운동장내 ☎320-802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 ■ 시상 및 전시

- 시상 : 2005년 11월 25일 13시 30분~
- 전시 : 2005년 11월 25일~26일
- 장소 : 서산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 ■ 시상내역

- 문화관광부장관상(4명) 개인, 동아리부문 중·고 각 1명
- 충청남도지사상(12명) 부문별 중·고, 대학생 각 1명
- 충청남도교육감상(24명)  
[우수상] 개인, 동아리 부문 중·고 각 1명  
[우수상] 체험수기, 만화·그래픽 부문 중·고 각 1명  
[특 선] 개인, 동아리 부문 중·고 각 3명  
[특 선] 체험수기, 만화·그래픽 부문 중·고 각 3명
-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소장상(44명) - 부문별 중·고 각 4명, 대학생 각 3명
- ※응모수에 따라 시상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장관상은 청소년업무이관으로 타 부처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담당장학사 이 옥 주 ☎042-580-7233,4
-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윤 영 부 장 오 제 상 ☎041-736-9003,4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Chungcheongnam-do Youth Volunteer Center

<http://www.bongsai.or.kr>  
충남 논산시 취암동 19-1 공설운동장내 (320-802)

<http://www.youthalba.or.kr>  
☎ 041) 736-9003(4) FAX : 041) 733-1984